

BARITON KIM, KIL-SOO RECITAL

바리톤 김길수 독창회

2011.12.12.(월) 19:30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홀

F. Schubert
R. Schumann
V. Bellini
W. A. Mozart
G. Verdi
F. P. Tosti
조두남
신동수
M. Leigh
C. M. Schoenberg



장미경 이종진 장영호

주최 부산교육대학교
후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음대동창회 성음회
서울성악아카데미 부산성악아카데미
김타빌레남성인상물 이태리음악연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입장권 전석초대
문의 051)500-7268, 010-7294-7268

*본 공연은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의 일부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7
바리톤
김길수
독창회

2011.12.12.(월) 19:30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홀

Profile



바리톤 김길수는 성남고 재하시 은사인 김수길 선생님을 만나 음악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 김성길 교수님을 사사하여 졸업하고 곧바로 유학하여 이태리 롯시니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베스카라 음악원 오페라과에서 Aldo Protti를 사사하여 졸업하였다. 그 후 베르니니궁에서 독창회, 갈라르시르 등 크고 작은 음악회에 다수 출연하고 귀국하여 부산교육대학교에 재직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가곡들을 10개 국어로 발표하였고, Bass, Bass-baritone, Baritone의 영역을 넘나들며 La Traviata, Rigoletto, Pagliacci, Pizza con Funghi, Un Ballo in Maschera, 춘향전 등의 오페라 주역, 예술감독을 맡았고 독창회는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서울에서 서울성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회장을 역임하였고, 성음회는 현재 회장으로 일을 맡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남성양상을 칸타빌레 회장과 이태리음악 연구회 회장으로 지역사회의 음악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수업 외에 부산교육대학교 인재교육원 음악영재반 책임교수로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배움을 위해 거의 매주 서울에서 이순철 님을 사사하고 있기도 하다.



피아노/신애정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부산 피아노 연주가 클럽 회장.



피아노/이은정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한세대학교 피아노교수학 박사.
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해설/양종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교육대학원 졸업.
헝가리 코다이 음악원 졸업.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Program

- F.Schubert* An die Musik 음악에 붙임 Piano, 이은정
Wasserflut 홍수
- R.Schumann* Die Lotoblume 연꽃
Die beiden Grenadiere 두 사람의 척탄병
- V.Bellini* Dolente immagine di Fille mia 내 슬픈 모습의 필레 Piano, 신애정
Vaga Luna, che inargenti 빙랑하는 은빛 달
- W.A.Mozart* Non piu andrai 더 이상 못 날으리 Opera "Le Nozze di Figaro" 중

INTERMISSION

- G.Verdi* Credo in un Dio crudel 잔인한 신을 믿노라 Opera "Otello" 중 Piano, 이은정
- F.P.Tosti* Non t'amo piu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Chanson de l'Aieu 이별의 노래
- 조두남 신촌 Piano, 신애정
신동수 신아
- M.Leigh* The Impossible Dream 이룰 수 없는 꿈 Musical "Man of la Mancha" 중
- C.M.Schoenberg* Stars 별들 Musical "Le Miserables" 중

Ryrics

An die Musik (음악에 붙임)

그대 사랑스러운 예술이여,
인생의 거친 헛바위에 나를 끼워 맞추던
그 많은 희색빛 시간들 속에서
그대는 내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불 지피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종종 탄식이 그대의 하프로부터 흘러나왔고,
그대의 달콤하고도 신성한 화음은
보다 행복한 시간의 하늘을 내게 열어 주었다.
그대 사랑하는 예술이여,
그것들에 대해 그대에게 감사드립니다.

Wasserflut (홍수)

한없이 흐르는 내 눈물이
눈 위에 떨어지고
그 차가운 눈덩이는 목이라도 마른 듯이
내 뜨거운 고통을 빨아들이네.

새싹이 돌아나고
혼풍이 불어오면
얼음은 조각나고
눈은 녹아버리겠지.

눈이여, 내 그리움을 알고 있는 눈이여,
도대체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냥 내 눈물을 따라가면 작은 시내가
너를 맞아 줄 텐데.

시내를 따라 도시에 이르러 활기찬 거리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면
내 눈물이 뜨거워지는 곳이 있으리라
바로 그곳이 내 사랑하는 이의 집이지

Die Lotosblume (연꽃)

위황찬란한 태양 앞에 연꽃은 두려워 편다.
그리고 고개 속에 꿈꾸듯 밤을 기다린다.

연꽃의 연인 달이 빛으로 그녀를 깨우면,
그게서야 연꽃은 기꺼이 기쁨에 가득한 얼굴을
드러낸다.

연꽃은 피어나고 날아 오르며 그리고 빛을 낸다.
그리고 가만히 저 먼 상공을 응시한다.
연꽃은 향기를 내고 울며 그리고 찬을한다.
사랑 때문에 또한 사랑의 아픔 때문에.

Die beiden Grenadier (두 사람의 척탄병)

러시아에서 포로였던 두 사람의 척탄병이
프랑스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독일 땅에 들어 왔을 때,
그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패했으며,
용감한 군대가 정복당하고 부서졌으며,
또한 황제 폐하께서, 황제 폐하께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래서 비참한 소식을 듣고
척탄병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한 명이 말했다.

“참으로 애통하구나, 정말 아프구나 예전의
상처!”

다른 사람이 말했다.

“노래는 끝이네, 또한 나도 자네와 함께 죽기
원하네. 그러나 난 내 없이 안되는 아내와 아이가
집에 있다네.”

나에게 아내가 무슨 소용인가.

Ryrics

Vaga luna che inargenti

(방랑하는 은빛 달)

예쁜 달은 은빛으로 물들인다.
달은 이 해안과 꽃들을 은빛으로 물들인다.
그리고 사물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불어넣어 준다.
나의 타오르는 욕망에 대하여
지금 너에게만 말한다.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심장의 박동과 한숨을 새어보라.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말하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의 슬픔은 진정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희망을 먹고 산다고,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다, 그녀가 나의 미래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또한 그녀에게 말하라 밤낮으로
내가 슬픔의 시간을 세고 있다고,
그녀의 사랑에 대한 희망이 나를 달래주고 있다고.

Non Piu Andrai (더 이상 못 날으리)

귀여운 나비야 곧 피나리,
밤이나 낮이나 뱀을 돌며
애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내 사랑
사랑의 요정아,
어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내 사랑
사랑의 요정아,

아름다운 것과 예쁜 모자,
이젠 더 찾지 못하리리다.
그 머리로 발달한 모습도 부인같이 붉은 피부도
모자도 그 모자것도 그 머리로
밝은 모습 이젠 못 가지리.

아이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훨씬 더 나은 것을 갈망한다네.
그들이 배고프다면 그들이 굶게 하게,
나의 황제, 나의 황제께서 포로가 되었네!

형제여,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네.
지금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프랑스로 옮겨다오,
프랑스 땅에 나를 묻어다오,
너는 명예로운 십자가 붉은 리본을,
나의 가슴에 달아다오,
충을 나의 손에 쥐어다오,
그리고 대검을 따로 묶어다오.

그렇게 나는 무덤 안에서,
보초처럼 누워서 잠자고 귀를 기울이겠네,
내가 대포 울림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리고 군마의 발굽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때 나의 황제는 수많은 칼 부딪치는 소리와
번독임과 함께
나의 무덤위로 말을 타고 갈 것이네.
그때 나는 무덤 밖으로 무장하고 올라와
황제를, 황제를 수호하리!

Dolente imagine Fille mia

(내 슬픈 모습의 필레)

내 슬픈 모습의 필레여,
왜 그리 창백한 얼굴로 내 곁에 앉아 있는가,
무엇을 더 원하는가,
허영없는 눈물을 나는 너의 재 위에 쏟았노라,
두려워하는가, 신성한 맹세를 잊은 채
내가 다른 빛으로 불타리라고,
필리테의 그림자여, 고이 쉬어라,
지난날의 불길은 꺼지지 않으리니, 지난날의 불길은
꺼지지 않으리니

Ryrics

용사들과 함께 섞여! 수염달고 배낭메고
총을 들고, 칼을 차고 곳곳하게,
뿔날세고, 떠를 차고,
군모를 쓰고 점점 더 잘난체 하나.
판당고 춤 대신하여
흠뻑물속 행진하여,
산과 계곡도 넘는다.
나팔소리 대포소리
폭탄소리에 맞추어 안개를 뚫어 가면서
천둥소리 날 때 총알이 스치기네.
케루비노 승리하라.
군인들의 영광을.

Credo in un Dio crudel (잔인한 신을 믿노라)

그래, 난 이미 너를 간파하고 있네,
악마에게 걸렸네.
그 악마는 여기 있네.
또 나의 악마를 나는 믿고 있고,
날 악마로 만든 신을 믿으며 성날 때
내게로 불어오네.
비열하고 흉악한 근본에서 난 태어났네.
난 흉악하고 비열함으로 내 마음속엔 미움이 있네.
그래, 이것은 내 믿음일세.
이 굳은 믿음은 과부가 무당을 믿는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나의 운명을 위함이네.
정직한 사람, 그것은 가면이지.
그들의 진실은 모두가 다 거짓일세.
눈물도 사랑도 진실도 희생과 또 명예 난 믿네.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의 무리라고,
평생 고생하고 나면 죽음!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는? 죽음,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네.
천국이란 오래된 동화일 뿐!
평생 고생하고 나면 죽음!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는 죽음,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네.
천국이란 오래된 동화일 뿐!

Non t'amo piu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당신은 아직도 우리가 만났던 날을 기억하는가,
당신의 약속들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사랑에 미쳐서 당신의 뒤를 따랐지,
사랑에 미쳐서,
그리고 당신 가까이에서 꿈꾸었다.
사랑에 미쳐서,
나는 꿈꾸었다.
행복한 상태로 예무들을,
그리고 입맞춤들은 사라졌다 하늘로,
나의 격분은 당신의 말 때문이었소,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얼음장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기억하는가,
당신은 아직 기억하는가?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거대한 갈망은
나의 사랑의 꿈은
더 이상 당신은 아니오.
당신의 입맞춤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한다오,
당신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
나는 또 다른 이상을 꿈꾼다오,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오,
우리가 함께 보였던 사랑스런 날들에
나는 꽃을 뿌렸다,
당신의 오솔길에,
당신은 내 마음의 유일한 희망이었소,
당신은 내 마음의 유일한 생각,
당신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소, 창백한 채로,
당신은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소,
당신 앞에서.
나는 단지 당신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었소,
나의 피와 그리고 나의 믿음을.

Ryrics

The Impossible Dream (이룰 수 없는 꿈)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는 것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참는 것
감히 갈수 없는 곳으로 용감히 나아가는 것

바로잡지 못할 것을 바로잡는 것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쫓아가는 것
힘이 다 빠져도 끝까지 해보는 것
달을 수 없는 별을 향해 손 내미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
저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먼 길이라도

정의를 위해
의심 없이 험 없이 싸우는 것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리

나는 알리라 진심을 다해
이 영광스런 여정을 간다면
내 마음 평화로우리
눈 감는 날에도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되리
험한 세상 풍파로 상처받은 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용기를 다해
달을 수 없는 별을 향해 나아갔으므로

Stars (별들)

저기, 어둠에서 나온 타락한 도망자가 달린다.
신은 나의 증인이시니 난 결코 포기 않으리,
우리가 서로 대면할 때까지.
그는 어둠 속 그의 길을 알지만
나의 길은 주의 길,
정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상급을 받으리라,
그들이 타락한 루시퍼 천사처럼 쓰러진다면
불길과 칼을 맞으리라!
그리 되어왔고 그리 쓰였듯
천국에 이르는 관문에서
머뭇거리거나 쓰러지는 자는 댓가를 치르리라,
주는 그를 찾게 하시리,
안전한 옥중에서 그를 볼 수 있으리,
난 쉬지 않으리, 그때까지,
이를 맹세하노라!
별들에게 맹세하노라!